

CREATIVENESS

Special Theme

창의성, 다른 생각이 다른 행복을 만든다

People

애플 디자인 책임자 조너선 아이브

Pentaz Hotel

The Scent of Blooming

La Goutte

Spring Taste

THE CLASSIC 500

HIGH CLASS SENIOR SOCIETY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018 Spring Vol. 34



01 EYES

지진아 파블로 피카소
그를 거장으로 만든 고집스런 창의성

02 SPECIAL THEME

창의성, 다른 생각이 다른 행복을 만든다

04 CREATIVENESS STORY

세계를 이끄는 창의성의 비결, 경험

06 CREATIVENESS PEOPLE

창의력을 벤치마킹하다
애플 디자인 책임자 조너선 아이브

10 CREATIVENESS ART

렘블란트의 초상이 주는 메시지
창의성은 삶의 축적이다

12 CREATIVENESS INTERVIEW

‘진정한 행복’이라는 향수를 만드는 매력남!
더 클래식 500 김근 회원

16 CULTURE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마틴 인 더 필즈’
내한 공연 외

18 TRAVEL

세잔과 고흐의 프로방스
그림으로 시작해 미각으로 만나다

24 PENTAZ HOTEL

The Scent of Blooming

30 LA GOUTTE

Spring Taste

34 FACILITY

365일 건강을 약속한다
Pentaz Hotel Fitness

40 SENIOR BUSINESS MEDICAL SERVICE

최첨단 IT 접목으로 시니어 의료 비즈니스를 실현한다
더 클래식 500 시니어 헬스케어

42 EVENT

인생의 특별한 순간
더 클래식 500 ‘꽃보다 청춘’
평창 올림픽 투어

44 CALENDAR

커뮤니티 주요 소식 및 활동 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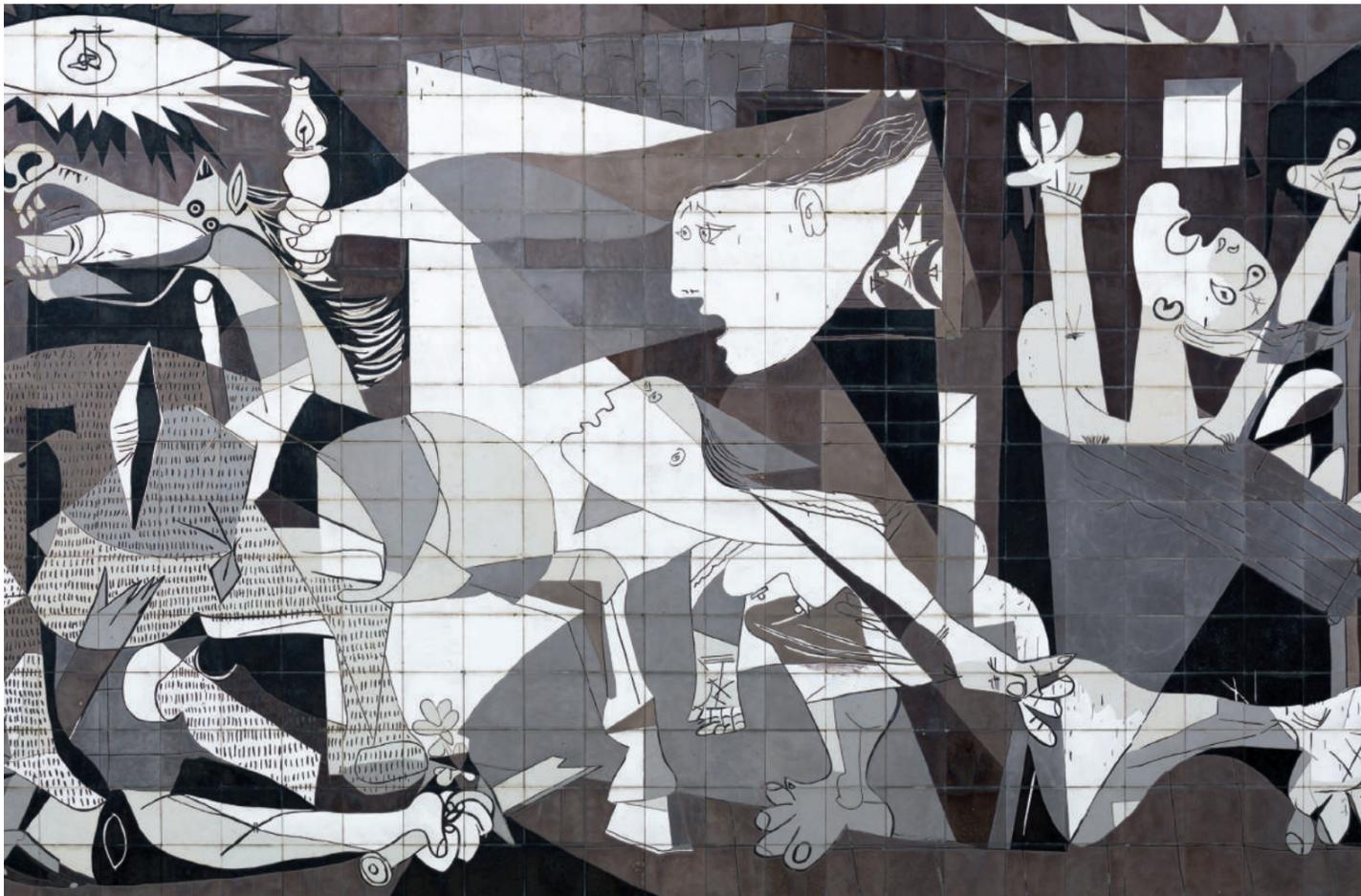
46 NEWS

더 클래식 500 소식

THE CLASSIC 500

high class senior society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 018 spring vol. 34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1937년 작 게르니카 / 캔버스에 유화

지진아 파블로 피카소 그를 거장으로 만든 고집스런 창의성

‘불멸의 화가’로 불리는 스페인 출신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그는 화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림을 그렸다. 타고난 재능을 보였지만 피카소는 학습 능력이 떨어져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열네 살 때는 바르셀로나의 미술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정형화된 미술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결석을 밥 먹듯 하다가 결국 중퇴했다. 마드리드의 왕립 미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피카소는 화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깨끗하게 개척해나갔다. 그는 회화의 전통 기법인 원근법, 단축법, 명암법 등을 따르지 않았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나누고, 쪼개고, 제거해 최대한 단순화한 다음 자신이 분석한 대로 상징화했다. “나는 찾지 않는다.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할 뿐이다.” 그의 말처럼 피카소는 새로움을 재발견하는, 창의성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였다. 그 결과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와 공동 작업으로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그만의 창작은 나이 여든에도 이어졌다. 피카소는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고, 이후 동명의 작품을 27점이나 남겼다. 실제 대상에 대한 치열한 연구가 피카소만의 창의적 관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무려 3만여 점의 작품을 남긴 다작의 화가로,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



Crea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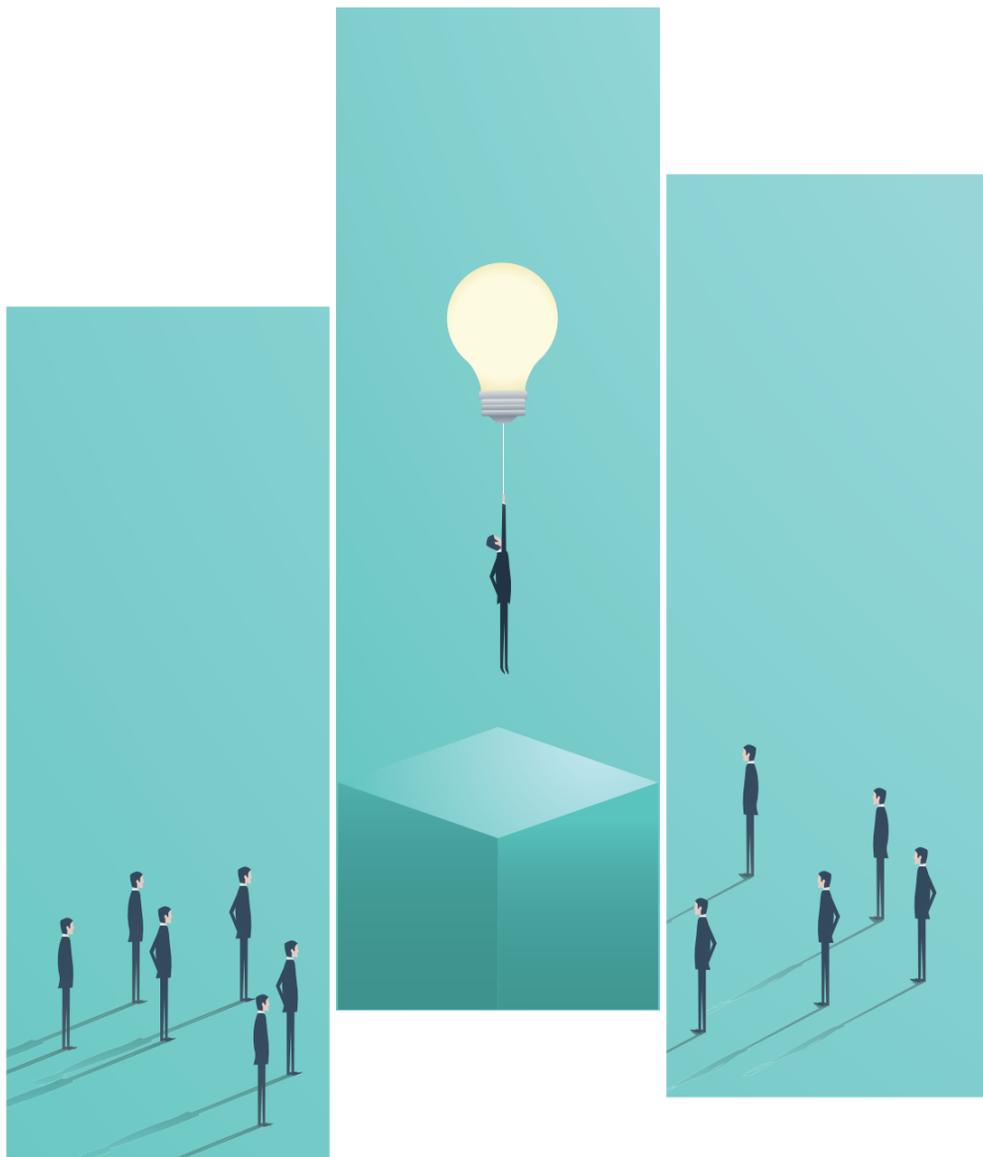
창의성, 다른 생각이 다른 행복을 만든다.

역사의 물길을 바꾸고,
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인물들은 모범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과 다르기 위해 노력했다.
자기만의 생각과 표현, 행동,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즐겁고 흥분되는 경험이며
행복이라는 남다른 인생의 결실을 맺게 한다.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력의 이상”이라는 칸트의 말처럼
다르게 살면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세계를 이끄는 창의성의 비결, 경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인류가
가까운 미래 사회를 이끌 전망이다.
한 분야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다른 영역에 적용해
한층 풍부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여기에 지혜와 균형감을 곁들여 질문에 답하는 일,
바로 미래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창문을 활짝 열자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다. 옷을 가볍게 입고 물오른 나뭇가지에 움튼 꽃눈을 들여다보며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다. 미래엔 시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흥흥한 전망 속에도 올해도 약속처럼 모든 생명이 새로이 깨어나고 있다. 매체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로봇이 할 수 없고, 오로지 사람만 할 수 있는 창조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에 필요한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 세계는 영재들을 모아 정보통합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지식만으로 인류가 직면한 난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연결 지능, 즉 융·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필요한 창의성은 배워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인가.



“창의적인 것은 연결에서 나온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애플 컴퓨터와 아이폰을 만들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전자공학을 좋아한 그는 기존에 있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 새로움을 변주했다. 히말라야를 여행할 만큼 선불교에 심취했고, 캘래그래피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두 훗날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 ‘매킨토시’를 만드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기능과 디자인이 함께하는 잡스의 철학이 이 순간부터 작동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2007년에 만든 아이폰은 창의적인 연결의 결정체로 휴대전화, MP3, 노트북이 결합된 제품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서비스를 경험하는 시대로 사람의 인식을 바꾼 일대 혁명이었다.

한편 샤넬을 환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역시 다양한 경험으로 펜디, 끌로에 등에서 30여 년 이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는 스스로를 다국적 패션 현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스웨덴과 독일 출신의 부모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까닭이다. 칼 라거펠트뿐 아니라 조르지오 아르마니, 도나 카렌, 베라 왕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 대부분 이와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가졌다는 통계가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애덤 갈린스키 교수팀은 다양한 문화 경험이 혁신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1년간 데이터를 수집했고, 깊이 있는 이질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뛰어난 창의성이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노력과 시간을 갖고 통과해 얻은 경험이야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다.

스티브 잡스와 칼 라거펠트 등을 통해 창의성이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 다른 하나를 변주하는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완성도 있는 변주를 위해 단단한 경험 속에 역사, 철학, 언어, 문학 등 인문, 예술, 교양,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표 인물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 그는 화가인 동시에 수학자, 건축가, 천문학자, 해부학자, 물리학자였다. 매년 봄이 돌아오면 새싹이 고개를 내밀듯, 시대마다 크거나 작게 영역을 구분 지으며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경험자들이 다양한 사회 공동체마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초록 풀이 온 땅을 촘촘히 채우는 이 봄날, 세상에 일어날 일은 어김없이 모두 일어난다는 이치를 자연이 항상 깨닫게 한다. 변화를 앞두고 감지되는 두려움은 인류의 오래된 정서일지 모른다. 이미 배움을 통해, 혹은 세상에서 알알이 여문 경험에 지혜를 보탠 인류가 항상 있었다. 여기에 지혜와 인성까지 갖추었다면 플라톤이 말한 ‘철인’에 가까운 미래의 리더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

창의력을 벤치마킹하다

애플 디자인 책임자
조너선 아이브

Jonathan Paul Ive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디자인, 경쾌하게 한 입 베어 문 하얀색 사과 로고를 본다면 누구라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를 떠올릴 것이다. 이들 제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조너선 아이브다.

2011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조너선 아이브.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으로서는 그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비범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창의력의 아이콘, 조너선 아이브

애플의 최고 경영자 잡스가 사망하자 사람들은 애플의 창의력 공백을 메울 인물로 단연 디자인 책임자 조너선 아이브를 꼽았다. 그는 잡스와 함께 애플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촉이자 잡스의 가장 뛰어난 창의력 파트너였다. 잡스는 아이브야말로 애플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이브가 세상에 내놓은 제품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실용적일 뿐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992년 애플 입사 이래 디자인의 마법사로 불리던 아이브는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었다. 불과 스물아홉의 나이에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의 디자인팀을 이끄는 수장이 된 아이브는 아이맥(1998), 아이팟(2001)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아이폰(2007)과 아이패드(2010)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히트 제품을 연달아 내놓았다. 셀 수 없이 많은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디자인 및 기업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영국 여왕에게 기사 작위까지 받았다.

* * *

조너선 아이브는 1967년 런던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칭퍼드 자치구에서 태어났다. 영국은 알렉산더 맥퀸(지방시), 데이비드 루이스(뱅크올롭슨),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수없이 많이 배출한 나라다. 그리고 1980년대 아이브가 받은 영국의 예술·기술 교육을 논하려면 당시 영국의 문화적·역사적 영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영국은 노동조합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중도 사회주의 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미국의 레이건 모델을 따르는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젊은 층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영국의 젊은이들이 인습 타파, 모험심, 실험 정신으로 가득한 펑크 록에 사로잡힌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저항하고자 함이었다. 훗날 아이브의 디자인 기법에서도 특유의 독립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이브가 학업을 이어가던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한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디자인은 미국과는 궤를 달리한다. 미국 디자이너가 산업계의 요구에 순순히 그리고 철저히 부응한다면, 영국 디자이너는 다른 분야의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한다. 미국의 디자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종업원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면 영국은 열정을 좇고 팀원을 끌어 모으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평가하곤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 탓에 실험적이면서도 임기응변적인 방식이 자연스레 몸에 배게 된다. 아이브 역시 독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작업 방식을 고수했고, 그의 디자인 철학은 잡스를 만나며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Who

남달랐던 유년기, 아버지의 영향으로 재능을 꽃피우다

조너선 아이브의 아버지 마이크 아이브는 대학에서 은세공을 가르치는 은세공 전문가였다. 아이브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으며 재능을 꽃피웠다.

마이크 아이브는 어린 아들에게 틈만 나면 디자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했다. 함께 거리를 걷다가도 길가의 가로등을 보며 왜 하필 저 위치에 설치했는지, 그리고 장소에 따라 제각각 다른 종류의 가로등을 설치한 이유를 아들에게 묻는 식이었다. 조명의 각도와 범위에 대해, 기상 조건에 따른 가로등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렇듯 늘 주변 환경과 구조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어떻게 하면 더 낮게 바꿀 수 있는지 개선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보곤 했다.

아이브는 드로잉과 만들기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일찌감치 아들의 끼를 알아본 아버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곤 했다. 자신의 대학 작업실에 데려가 무엇이든 만져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아이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볼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손으로 그려보며 만들 물건을 상상하고 계획하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제작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해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에 들어간 정성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죠. 저는 어떤 제품에서 소홀함이 느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조너선 아이브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조너선 아이브: 위대한 디자인 기업 애플을 만든 또 한 명의 천재>에 나오는 구절이다. 풍요로운 창작 활동을 하며 유년기를 보낸 아이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디자인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영국의 뉴캐슬 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로버츠 워버 그룹(RWG)의 후원을 받아 대학 생활을 했으며, 재학 시절 이미 다수의 디자인 공모에 입상하며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How to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긴다

소년 시절부터 아이브는 유독 사물의 작동 원리에 호기심이 많았다. 라디오나 카세트, 녹음기 등을 분해하곤 했으며, 각각의 제품을 구성하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종종 분해한 제품을 원상태로 돌려놓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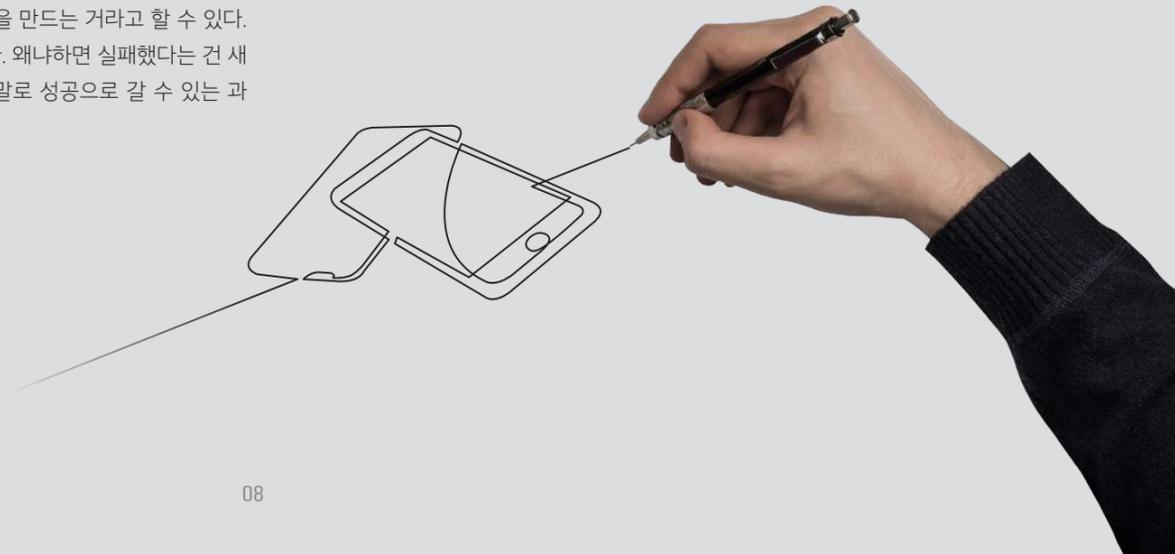
무엇이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 과정을 통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또 형태는 어떠한고 재료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습관은 이미 어린 시절 갖추게 된 디자이너로서의 미덕이었다.

조너선 아이브가 수많은 시제품을 만든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 시절 소니가 후원하는 '미래의 전화기'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당시 아이브가 인턴으로 몸담고 있던 회사의 디자이너가 그를 보러 갔다가 방에 수백 개의 모형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대부분 학생이 기껏해야 5~6개의 모형을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량이었다. 방 안에 널브러진 수백 개의 시제품은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었으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본 디자이너는 "마치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회고한다.

시제품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실패작'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브는 실패를 기꺼이 즐겼다. 왜냐하면 실패했다는 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며, 실패야말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겉이 아니라 안을 고민하다

조너선 아이브가 디자인을 시작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건 겉모습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할 때도 3차원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소재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야 제품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아이브의 지론. 그가 애플의 디자이너가 되기 이전에 일본 지브라사의 펜, 빗, 변기와 같은 다양한 생활 용품을 디자인한 이력 또한 제품의 디테일을 따지는 데 힘을 실어 주었을 것이다.



'나 홀로 창의력'보다는 팀워크

조너선 아이브의 전기를 집필한 리앤더 카니는 책 서문에 아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필자는 2003년 맥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초저녁 파티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조너선 아이브를 보게 된다. 프리랜서 기자였던 리앤더 카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 떠오르던 그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 담소를 나눈다. 같은 영국 출신에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라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약속에 늦었다는 걸 알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바람에 노트북 가방을 두고 오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자정이 한참 지난 무렵 한 호텔 바에서 아이브를 다시 마주쳤는데, 놀랍게도 그의 어깨에 자신의 가방이 걸쳐져 있는 걸 보게 된다. 리앤더 카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건망증이 심한 기자의 노트북 가방을 밤새 들고 다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란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행동 방식이야말로 조너선 아이브의 특성이란 걸 알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늘 팀과 협력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으며, 조직의 팀워크를 중시했다. 협력과 존중은 아이브의 타고난 장점이었다. 흔히 영국 출신 디자이너의 특징을 꼽는다면 이른바 '쇼맨십', '스타 기질'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이브 역시 꾸준히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그에게서는 자기도취를 찾아볼 수 없었지요. 디자인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자질이었어요. 재능은 없으면서 자기도취에 빠져 거만하게 구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조니는 정반대였어요. 디자인할 때면 그는 작품과 사랑에 빠졌습시다. 자신을 잊고 작업에만 몰두했지요."

대학 시절 인턴으로 근무한 RWG의 선배 디자이너 클라이브 그리너의 말이다. 그의 눈에 비친 아이브는 회사에서 가장 어리지만 그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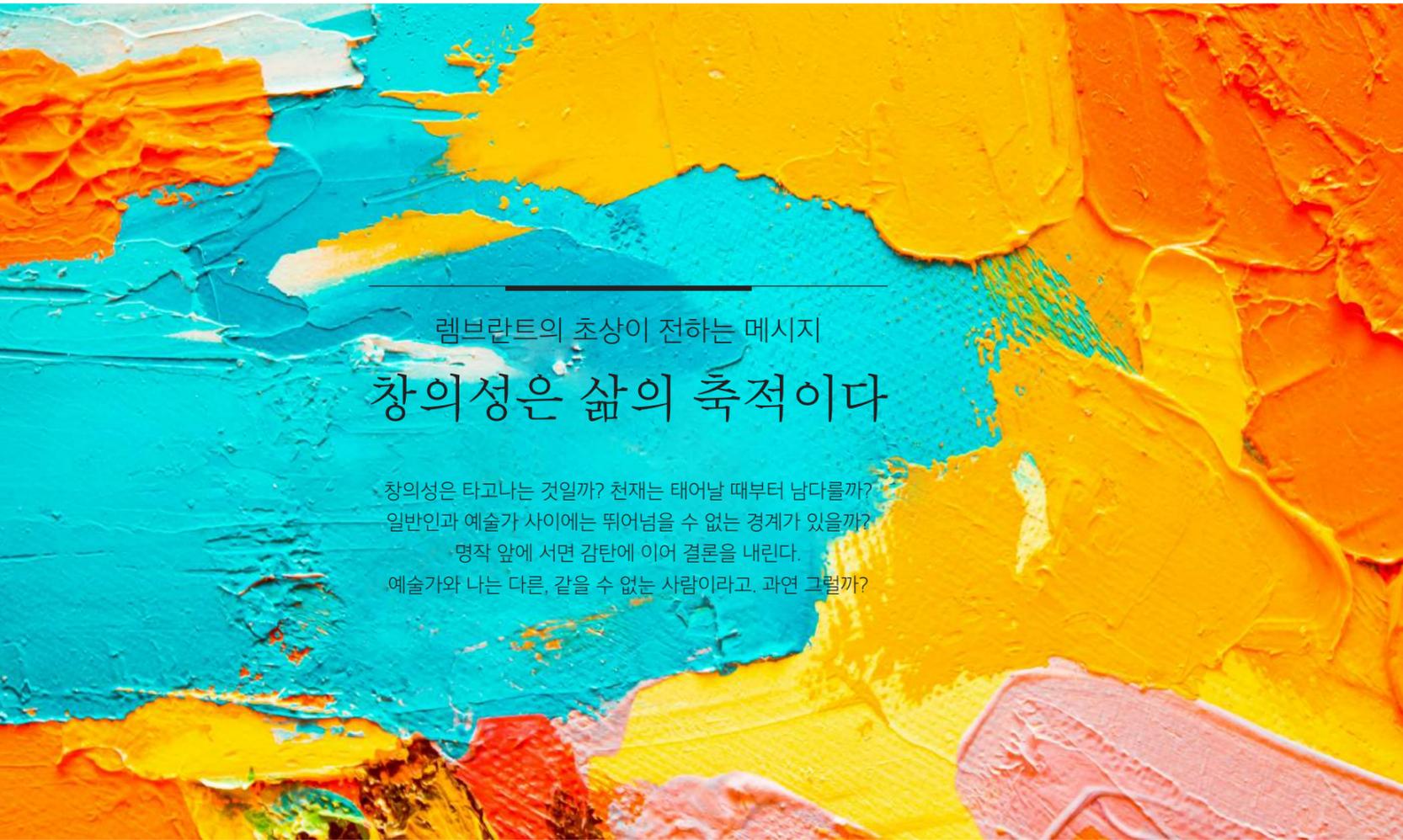
구보다 열정 넘치는 청년이었다. 숫자가 없고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가슴 깊은 곳에 자신감을 품고 있는 어린 친구, 그가 바로 조너선 아이브다. 학창 시절 동창들이 기억하는 아이브 역시 비슷한 이미지인데, 약간 통통한 체구에 짙은 머리칼을 지닌 겸손한 학생이었다고. 하지만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어서 인기도 제법 있고 교내·외 다양한 과외 활동에도 참여했으며, 하얀 까마귀(White Raven)라는 밴드에서는 드러머로 활동하며 마음껏 개성을 뽐내기도 했다.

창의력의 원천, 인문학에 대한 끝없는 관심

아이브는 디자인 관련 이론을 넓히는 데 특히 열심이었지만 디자인만 공부하는 디자이너는 아니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 F. 스키너의 책을 비롯해 다방면의 인문학 책과 문학작품을 탐독했다. 박물관 애호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디자인에 관한 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을 수없이 드나든 경험도 아이브의 학식과 감성이 풍부해지는 데 일조했다.

다양한 경험과 인문학적 소양은 결과적으로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스티브 잡스가 주장한 '기술에 인문학을 결합'하고자 한 철학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타고난 성실함과 겸손함,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 풍요로운 교육 환경, 아버지의 열정과 동기부여가 조너선 아이브의 창의력을 빛나게 한 일등 공신인 셈이다.

흔히 애플의 핵심 키워드로 '사용자 편의'를 꼽는다. 이 말은 결국 기술은 늘 따뜻해야 하며,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밑바탕되어야 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따뜻하고 세심한 디자이너의 손길과 기발한 창의력은 우리 생활에 매우 친숙한 디자인을 선물해 주었으며, 그것들은 손기능을 하며 많은 이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다.



렘브란트의 초상이 전하는 메시지 창의성은 삶의 축적이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가?
일반인과 예술가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을까?
명작 앞에 서면 감탄에 이어 결론을 내린다.
예술가와 나는 다른, 같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과연 그럴까?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푼다. 또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영재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술'이다. TV에 나오는 그 많은 영재들이 커서 모두 진짜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아이들은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다. 그 이유는 다른 아이들보다 재능이 더 많은 것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예술가로 태어나려면 재능과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피카소를 예로 들어보자. 피카소는 실로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다. 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미대생 수준의 테크닉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재능은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이 가진 테크닉일 뿐이다. 더 뛰어난 무엇이 있어야 한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알아봤다. 자신은 비록 평범한 화가였지만, 아들만은 위대한 예술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1년 동안 비둘기만 그리게 했다. 피카소에게는 매우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소중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 비둘기를 잘 그리려고 비둘기를 하도 보았더니 비둘기 다리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비둘기의 다리를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비둘기 다리 모양이 수십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도약이다. 피카소는 집요한 관찰을 통해 다른 사람들

은 절대로 보지 못한 비둘기의 다리를 본 것이다. 그런 직접적이고 치열한 관찰을 거쳐 표현된 비둘기 다리는 모방을 넘어 숙명적으로 독특한 표현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예술은 모방에 개성을 더하는 것이 필수

단순한 기술이 예술로 진보하려면 모방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대다수 아이가 잘하는 것은 모방이지 표현이 아니다. 노래든 춤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다. 댄스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애절하게 구애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것을 댄스 영재가 표현했을 때 그 영재, 즉 어린아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가장 예술적인 표현은 '저절로' 나와야 한다. 즉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것은 어느 순간 몸이 시키는 대로 나를 맡겨야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영재라 하더라도 애절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저절로' 그런 춤을 출 수 있겠는가. 그저 수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기계적으로 몸동작을 취할 뿐이다. 그건 춤뿐 아니라 모든 장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그것은 삶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진실한 성찰에서 나온다. 화가가 화실에서 위대한 선생에게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그는 스승을 똑같이 흉내 낼 수 있을 뿐이다. 스승을



렘브란트, '자화상', 1669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화실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 섞이며 희로애락의 온갖 감정을 느껴봐야 한다. 특히 고통과 슬픔이라는 절박한 순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 이를 때 그동안 화실에서 익힌 기술에 자신의 감정, 또는 혼을 불어넣을 수 있다.

성찰이란 대상을 자기의 삶과 연관시키는 것

피카소가 비둘기 다리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리 모양이 다양하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단순히 비둘기의 외양이 다양하다는 것을 넘어 비둘기를 저마다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찰하고 성찰해야 한다. 모든 사물의 겉모습은 단지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본성을 드러낸다. 그 본성을 성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양한 모양을 봐도 그 다름을 발견하지 못한다. 마치 우리가 수많은 사자 얼굴을 봐도 다 그 놈이 그 놈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숲에서 새소리를 들으면 그 숲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가 있는지 알아낸다. 어떤 사람은 대낮에도 푸른 하늘에서 목성을 발견한다. 그들은 일반인보다 새소리와 별의 본성에 대해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보는 것을 일반인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새와 별에 대해 훨씬 진실한 관찰, 나아가 성찰을 한 사람이다. 여기서 성찰이란 대상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관찰이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다. 대상의 본질에 다가감으로써 사물의 이치

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면 외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된다. 나무에 통달한 사람은 나무의 겉모습만 봐도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속성을 들여다볼 것이다. 마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알아내는 명의 처럼 말이다. 그것을 알아내는 힘, 그것은 삶의 성찰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기술을 예술로 바뀌는 창의성의 단서다. 오늘날 온갖 학원에서 가르치는 기술은 앞으로 등장할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삶에 대한 저마다의 고유한 경험과 성찰이다. 예술의 창의성이란 순식간에 찾아오는 영감이나 마술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축적된 기술과 세상에 대한 관찰, 그것을 다시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는 성찰과 연결될 때 빛을 발한다.

위대한 예술가 렘브란트의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가치가 높은 작품은 그가 아내를 잃고 재산도 모두 탕진한 뒤 늙고 외로운 화가가 되어 거울을 보면서 절대로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기록한 자화상이다. 사람들은 그 자화상에서 렘브란트가 온갖 삶의 희로애락을 겪은 뒤 어떠한 경지에 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술적 창의성이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향수를 만드는 매력남!

더 클래식 500
김근 회원



향수는 처음 뿌렸을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향수와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근 회원과의 만남도 그러했다.

처음에는 신선함이, 중간에는 진한 삶의 매력이 감돌았다.

마지막에는 따뜻한 마음이 은은하게 남았다.

향수와 나눔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아름다운 향으로 채워가고 있는

김근 회원과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한다.

일상 속에서 즐기는 향수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만큼 만남에 신경을 썼다는 증거이자,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향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로 상대에게 비치기도 한다. 이러한 향수의 매력을 아는 김근 회원은 여든이 넘는 지금도 향수를 챙긴다.

“향수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게 향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쾌하면서 우디 향이 나는 몽블랑 엠블럼 오드 투알렛을 즐겨 뿌립니다. 제 취향과 잘 맞아서 좋아하지요. 침실에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를 두거나,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베개에 잠을 부르는 향을 뿌리는 등 일상에서 향수를 즐기고 있어요.” 김근 회원이 애장하는 향수 컬렉션은 상당히 다양하다. 발망, 몽블랑, 랑방, 페라리, 칼 라거펠트 같은 명품부터 패셔너블한 이미지로 각광받는 안나 수이, 폴 스미스, 지미추, 레페토가 눈길을 끈다. 캐주얼 브랜드 갭, 랄프로렌까지 향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만한 브랜드 제품이 즐비하다.

“(주)코익이라는 향수 유통업체를 창업해서 5년 전까지 경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향수를 소장하게 됐어요. 이 중 제가 직접 수입한 향수는 더욱 애착이 가지요.”

향수를 바라보는 김근 회원의 눈길에는 진한 애정이 배어 있다.

향수와 함께 시작한 제2의 인생

김근 회원에게 향수는 제2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장품 회사에 상무로 재직 중이던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향수 유통업을 선택했다. 이미 50대에 접어든 나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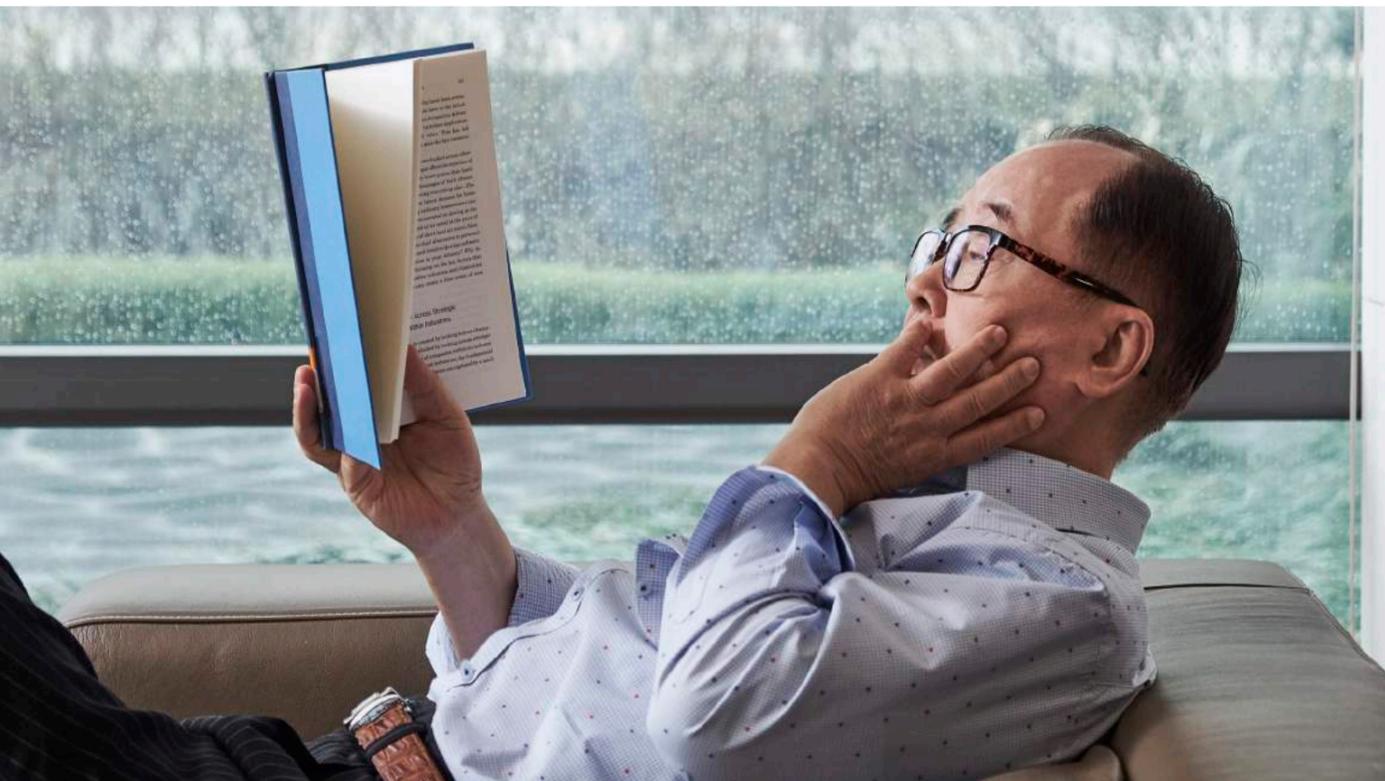
“국내에서는 소수층만이 향수를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출장으로 자주 방문했던 프랑스는 매우 다르더군요. 날씨 따라, 상황 따라,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향수를 구분해 사용할 정도로 향수가 삶 속에 하나의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지만, 언젠가 프랑스처럼 국내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향수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창업 아이템을 찾은 뒤에도 일이 쉽게 풀린 건 아닙니다. 전 직장에서 굵직 굵직한 성과를 낸 덕분에 소위 잘나가는 인기인이었거든요. 그 시절의 모습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비워내야 했지요. ‘그래, 다 버리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새롭게 도전하자’라고 결심하고 직원이라고는 경리 한 명뿐인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향수를 짊어지고 매일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삶이 시작됐다. 일면식도 없는 화장품 가게 사장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상품 진열을 돕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같이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갈 정도로 몸은 고되었지만 강한 집념과 쾌활한 성격으로 즐겁게 일을 꾸려갔다.

“그렇게 한 집, 두 집 저를 인정해주고 향수를 팔아줬습니다. 언젠가 시장에 나가보니 제가 수입한 향수들이 꼭 진열되어 있더군요.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불우 이웃 돕기에 나서

5년 전 김근 회원은 150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탄탄한 강소 기업으로 키워낸 코익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재산을 기부해 복지 재단을 설립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눔이라는 향을 선택한 셈이다.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어요. 집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돈을 벌어 어렵게 대학교를 다닐 때 ‘나중에 돈을 벌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며 그 시절의 결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전부 물려줄 생각도 없어요. 그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해 ‘참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김근 회원은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하면서 회사 임직원과 입주 회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에도 가입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전달, 난치병 환아 의료, 청소년 장학금 후원 등 저소득 지역 주민들의 후원을 통해 공동체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더 클래식 500에서 자원봉사단과 함께 매년 좋은 향수 바자회를 열어 수입금 전액을 후원하고 있다.

나눔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사회가 되기를

나누는 삶을 통해 김근 회원 역시 기쁨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과 선의 복지재단이 심장병 수술의 권위자인 건국대학교 병원 서동만 교수와 뜻이 맞는 사람 몇 명이 합심해 필리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던 일은 감회가 남다르다.

“심장 수술이 필요한 필리핀 아이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받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뜻을 모은 덕분에 성사시킬 수 있었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필리핀은 김근 회원이 어릴 적 한국전쟁으로 어렵고 힘들던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준 나라다. 그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더 특별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요즘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잘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해지는 빈부 격차로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눔이 우리 삶에 주는 기쁨을 알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감사함을 느끼게 되지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마음을 합하면 우리 사회를 위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행복은 일, 사랑,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나이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봉사도 좋고, 여행도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게 일이 되니까.

이렇게 서너 가지 좋은 활동을 하면서 부인, 친구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행복하고 향기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봄꽃만큼 다채로운 예술의 향연

여행의 설렘은 지도를 보며 시작되듯
예술가의 생각을 만나러 가는 출발부터 가슴은 두근거린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유쾌한 향신료.
THE CLASSIC 500 고객을 위해 엄선한 작품 4개.

concert

연주자와 음악감독으로 만나는 조슈아 벨

‘조슈아 벨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마틴 인 더 필즈’ 내한 공연

“지휘와 협연을 겸하는 연주자는 많았지만 조슈아 벨과 같이 지휘자, 협연자, 악장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음악감독은 드물다.” 조슈아 벨에 대한 <뉴욕 타임스>의 평이다. 이 평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슈아 벨은 이미 국내에 상당히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험담한 외모도 한몫했겠지만, 그의 연주는 귀로 들어와 가슴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반면 그가 영국의 대표적 악단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마틴 인 더 필즈(ASMF)’의 음악감독이라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ASMF는 매끄럽고 기품 있는 사운드를 선보이며 가장 영국적인 연주를 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오케스트라다. 1958년 네빌 마리너 경이 창단한 이후 유일한 음악감독으로 2011년부터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데, 얼마 전 2020년까지 계약을 갱신했다. 조슈아 벨이 ASMF와 내한하는 것은 2010년 이후 무려 8년 만이며, 음악감독으로서 내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아시아 투어를 위해 조슈아 벨과 ASMF가 준비한 레퍼토리부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흐와 차이콥스키, 바버와 피아졸라다.

1부는 고전 레퍼토리로, 첫곡으로 선보이는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조슈아 벨이 ASMF와 두 번째로 녹음한 <바흐>에 수록된 곡이다. 2014년에 발매된 이 앨범은 그해에 영국 라디오 방송국 클래식 FM이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옵서버>는 “조슈아 벨과 ASMF의 완벽한 조화로 산뜻하고 흥미진진해진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2번”이라고 평했고, <인디펜던트>는 “조슈아 벨의 ASMF가 연주하는 바흐의 두 바이올린 협주곡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조슈아 벨의 뛰어난 해석을 보여준다”라고 호평했다.

2부는 20세기 작곡가의 작품으로 꾸민다. 주목해야 할 연주는 단연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계’다. 조슈아 벨과 ASMF가 녹음한 비발디의 <사계> 앨범과 연주는 그들의 대표적인 인기 레퍼토리다. 2015년부터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계’는 조슈아 벨의 열정적인 연주와 그의 새로운 해석을 덧입은 덕에 익숙한 기존 크레메르 버전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영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ASMF와 조슈아 벨의 신선하고 젊은 해석, 그리고 그의 열정적이며 감미로운 음색은 이번 내한 공연을 주목하고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2018년 5월 31일, 예술의전당



ballet

발레의 대중화와 교육적 요소를 갖춘 ‘드라마 발레’

국립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발레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이 작품으로 쉽게 깨질 듯하다. 문학을 사랑한 안무가 존 프랑코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드라마 발레’라는 장르로 여러 작품을 발표해 대중과 발레의 간극을 대폭 줄였다. 그가 안무한 수많은 작품 중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비극이 대부분인 발레 장르에 몇 개 되지 않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코미디 발레다.

국립발레단 제7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강수진은 레퍼토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단원의 숨은 캐릭터를 발휘해 발레 마니아에게도 생소한, 하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작품을 선보였다. 판매율은 무려 95%. 이번에 선보이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기존 발레와는 확실히 다르다. 고전 발레는 주인공인 카타리나의 예쁜 모습만 보여주지만, 이번 작품은 남자를 때리거나 물어뜯는 것은 물론, 내숭 덩어리 동생 비앙카의 우스꽝스러운 동작 등 객석에서는 연신 웃음이 터져 나온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레에 다가가기 쉬운 재미있는 작품이다.

4월 19일~22일, 예술의전당

theater

일인극이 선사하는 놀랍고 박찬 감동 로베르 르파주 연출

<달의 저편>

연출가 로베르 르파주(Robert Lepage). 그의 천재성은 어디까지일까? 2003년 <달의 저편>을 시작으로 <안데르센 프로젝트>, <바늘과 아편>에 이르기까지 차원이 다른 상상의 세계를 무대에 펼친 그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한국에 알린 작품이자 놀라운 천재성을 담아낸 <달의 저편>을 15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00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45개국에서 공연되며 로베르 르파주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달의 저편>은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미국이 펼친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사와 이들 두 나라만큼이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두 형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파트를 정리하며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야기와 맞물려 유년기의 추억, 우주로 향한 인간의 꿈을 풀어낸다. 여러 배역을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배우 이브 자크(Yves Jacques)의 열연이 돋보이는 일인극으로, 무엇보다 다층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깊이 있는 메시지로 승화시키는 르파주의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단순한 무대와 일상적인 소품을 색다른 공간과 사물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연출력을 만끽할 수 있다.

5월 16일~19일, LG아트센터

exhibition

종이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만나는 선물 같은 시간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

너무 흔해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종이. 반면 가장 살갑게 표현할 수 있는 소재도 종이이다. 이 소재를 재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 팀의 아티스트들이 종이의 속성에 집중해 재료가 지닌 순수함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각 섹션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구로 대중과 교감하는 화제의 작가 ‘오밤 이정현’의 감성적인 글귀로 시작된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의 물성만을 활용해 오브제부터 건축적 구조까지 자유자재로 형태를 만들어내 페이퍼 아트계의 가우디로 불리는 ‘리처드 스위니(Richard Sweeney)’가 고요한 새벽에 반짝이는 별빛이 연상되는 크고 작은 종이조각을 선보인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순백의 종이에 화려한 패턴으로 수를 놓는 핸드 커팅의 귀재 ‘타히티 퍼슨(Tahiti Pehrson)’의 작품이 섬세한 손길로 환하게 부서지는 햇살을 담고 있다. 멈춰 있는 시간을 깨우며 잔잔하게 흔들리는 바람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아틀리에 오이(Atelier Oii)’의 작품 등 열 팀이 선보이는 작품은 종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아티스트의 놀라운 감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경이롭다.

5월 27일까지, 대림미술관

세잔과 고흐의 프로방스 그림으로 시작해 미각으로 만나다

프랑스 남동부의 프로방스는 그림 같다. 바닷가 혹은 내륙에 자리 잡은 마을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잔과 고흐를 비롯한 불멸의 화가들은 그림 같은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다. 프로방스에는 예술과 휴양, 미식의 세 가지 테마가 완벽하게 녹아 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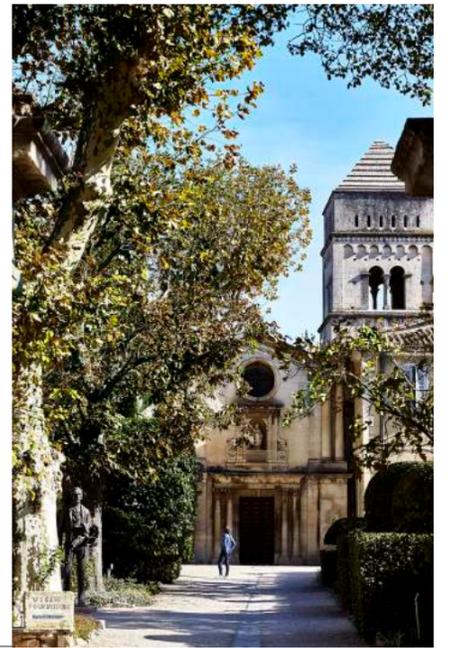
1 엑상프로방스 '세잔 투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잔의 아틀리에.
2 엑상프로방스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시계탑.
3 피카소가 자신의 유일한 스승이라 말했던 세잔이 죽기 전까지 머물며 작업에 몰두했던 아틀리에.

프로방스 예술 기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폴 세잔이 태어나고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마지막 숨을 거둔 도시다. 세잔이 다니던 학교, 아버지가 운영하던 은행이 있던 자리, 할머니가 살던 집 등을 둘러볼 수 있는데, 역시 그가 작업하던 아틀리에를 '세잔 투어'의 백미로 꼽을 수 있다. 세잔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4년을 레 로브 언덕의 아틀리에에 머물며 창작에 몰두했다. 세잔의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을 닮은 듯 소박하고 정갈한 아틀리에에는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사용했던 미술 도구와 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입었던 외투와 모자도 한쪽에 가지런히 걸려 있다. 책상 위에 다소곳이 놓인 과일과 와인병은 마치 세잔이 살아 돌아와 다시 그려주기를 기다리는 듯하고, 물감으로 얼룩덜룩해진 팔레트는 그의 치열했던 창작열을 말해주는 것 같다. 세잔의 아틀리에에는 유난히 창이 크다. 그는 자신의 작업 공간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는데, 빛의 변화가 가장 적은 북쪽으로 창을 냈다고 한다.



1

1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힌 루르마랭의 노천카페.
2 고흐가 말년에 한 해 동안 머물렀던 생레미드프로방스의 생폴드모줄 수도원.
3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정착했고 잠들어 있는 도시, 루르마랭.



2

화가의 성격을 닮은 듯한 아틀리에

미라보는 엑상프로방스의 메인 거리다. 1649년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 길차게 자란 플라타너스가 도열하듯 서 있다. 거리에 즐비한 카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53번지에 자리한 레 뒤 가르송(Les Deux Garçons)이다. 1792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로 세잔과 그의 '절친' 에밀 졸라가 즐겨 찾았다고 전해진다. 세잔과 졸라가 학창 시절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데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이탈리아 출신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예술가를 꿈꿨던 것이다. 하지만 졸라가 1886년 발표한 소설에서 세잔을 실패한 화가로 묘사한 것을 계기로 34년간의 우정은 끝이 나고 만다. 절교를 선언한 세잔은 후에 졸라의 장례식에도 불참한다. 이미 가족들과 멀어진 데다 '지음'마저 잃은 세잔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게 된다. 유명한 화가들 중에는 특정 대상을 반복해서 그린 경우가 많은데, 세잔은 엑상프로방스의 생빅투아르산(Mont Sainte-Victoire)을 유독 사랑했다. 살아생전 60번 이상 화폭에 담아냈을 정도다. 산자락에는 도메 드 생제(Domaine de Saint-Ser)라는 와이너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품종인 생소와 그르나슈, 시라를 혼합한 로제 와인의 인기가 좋다. 드라이한 풍미와 깔끔한 피니시가 인상적이다.

총 157개 마을 중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루르마랭(Lourmarin)은 <이방인>의 작

가 알베르 카뮈와 관련이 있다.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가 언젠가 제자 카뮈를 루르마랭에 초대했고, 그는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 "드디어 내가 문힐 묘지를 찾았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실제로 루르마랭에는 카뮈가 정착해서 살던 집과 그가 영면하고 있는 무덤이 있다. 모든 무덤이 그렇지만 해가 중천에 걸렸을 때 만난 카뮈의 묘는 말이 없었고 평화로웠다. 그를 특징짓는 키워드인 부조리와 비논의 그림자는 얼씬거리지 않았다.

생레미드프로방스(Saint-Rémy-de-Provence)의 올리브 농장 겸 제조 공장 물랭 뒤 칼랑케(Moulin du Calanquet). 2만 그루의 올리브나무에서 6만 리터라는 소량만 생산하고, 한 번 압착한 올리브는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곳의 올리브유를 맛보면 코끝을 감도는 풀 향, 혀에서 느껴지는 쓴맛, 목을 메우는 매운맛이 복합적으로 다가온다. 아를을 떠난 고흐는 생레미드프로방스의 생폴드모줄(Saint-Paul-de-Mausole)에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최후의 불꽃을 태운다. '별이 빛나는 밤에', '올리브나무', '자화상', '들판의 농부' 등 대표작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지금도 생폴드모줄 곳곳에는 고흐의 그림이 걸려 있고, 고흐가 입원 당시 머물던 병실, 병상, 물품 등도 그대로 보존돼 있다. 갇혀 지냈던 천재의 광기와 신산스러운 삶 때문일까. 프로방스에서 공기가 가장 차갑게 느껴진 공간이었다.



3



1

1 레보드프로방스의 카리에르 드 뤼미에르. 숲모를 잃은 채석장이 전시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2 퀴퀴롱 중앙 광장에 있는 인공 연못. 직사각형 연못 주변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호위하듯 늘어서 있다.

버려진 채석장의 화려한 변신

레보드프로방스(Les-Beaux-de-Provence) 또한 상주 인구 400여 명의 조붓한 마을이다. 하지만 이색적인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미식에 관한 자부심이 강한 고장이다. 제일 튀는 존재는 카리에르 드 뤼미에르(Carières de Lumières)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쓴 채 오랫동안 방치된 거대한 채석장이 이색적인 전시장으로 거듭났다. 100여 대의 프로젝터가 드넓은 채석장의 벽과 기둥, 바닥에 이르는 화가들의 그림을 비추는데, 시각과 음향효과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분위기가 사뭇 몽환적이다. 마치 화가의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연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레보드프로방스의 보마니에르(Baumanière)는 지역의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린 5성급 명물 호텔이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황태자, 피카소, 사갈 등 지금껏 호텔을 이용한 저명인사의 면면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현재 호텔 운영은 창업자의 손자 장 앙드레 샤리알이 맡고 있다. 그는 미술랭 2스타 레스토랑 '루스토 드 보마니에르(L'Oustau de Baumanière)'의 셰프이기도 하다. 샤리알이 이끄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강렬했다. 식재료에 대한 해석, 요리의 완성도, 플레이팅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그야말로 프로방스 음식 기행의 정점이었다.

고요한 중세 마을 라 카디에르다쥐르(La Cadière-d'Azur)의 베라르 호텔(Hostellerie Bérard)은 1969년 문을 열어 2대째 이어지는 가족 경영 숙박 시설이다. 호텔은 미술랭 1스타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 12년 전 아버지 르네 베라르가 별을 뒀고, 아들 장 프랑수아 베라르가 별을 유지하고 있다. 르네 베라르는 호텔 부근의 프로방스 양식 건물에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인기가 상당하다. 알고 보니 그는 26년 전 프랑스에서 최초로 쿠킹 클래스를 시작한 주인공이다. 쿠킹 클래스는 꼼꼼하게 진행됐다. 주름이 깊게 팬 인자한 표정의 셰프는 실 새 없이 채소를 썰고, 생선 비늘을 벗기고, 올리브유를 조심스레 따랐다. 3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식탁 위에 양소야드(마늘과 올리브유, 식초를 넣어 만든 안초비 휘레를 빵에 발라 오븐에 구운 요리), 베라르가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인 눈볼대가 들어간 생선 수프, 대구 살 휘레, 망고 소르베 등이 올랐다. 맛도 맛있지만 "요리할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의 초지일관과 신실한 태도가 더 인상 깊었다.

'작은 언덕'이란 뜻의 퀴퀴롱(Cucuron)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존재는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인공 연못이다. 직사각형 연못 주위에 아찔한 높이의 나무들이 호위하듯 늘어서 있고, 물빛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자못 신비스럽다. 퀴퀴롱은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은 곳이다. 연결 고리는 천주교.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에게 사제품을 준 제3대 조선교구장 장 조제프 페레올의 고향이 퀴퀴롱이다. 그는 김대건 신부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 1853년 서울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사망 원인은 과로였다고 한다. 마을의 노트르담 드 볼리외 성당은 페레올 주교가 세례를 받은 장소로, 그의 초상화와 선교 활동을 기록한 한국어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글과 사진 노중훈(여행 칼럼니스트)



카는 길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프랑스 국내선을 타고 마르세유로 간다. 비행시간은 약 70분. 마르세유에서 라 카디에르다쥐르와 엑상프로방스까지는 차로 각각 40분, 1시간 정도 걸린다.

쇼핑 지난해 4월 맥아더글렌 프로방스 아웃렛(www.mcarthurglen.com)이 오픈했다. 엑상프로방스에서 차로 40분 거리. 의류, 액세서리, 테이블웨어까지 모두 120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그중 프랑스 로컬 브랜드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올리브유는 생레미드프로방스의 몰랭 뒤 칼랑케(www.moulinducalanquet.fr)에서 구입하면 좋다. 보통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올리브를 수확하는데, 12월 10일경 첫 기름이 나온다.

숙박 라 카디에르다쥐르의 베라르 호텔(www.hotel-berard.com)은 오래된 건물 세 채에 총 3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다. 루르마랭의 라 페니에르(www.aubergelafeniere.com)는 프랑스 전통 오베르주(식당 겸 여인숙) 스타일의 숙소다. 레스토랑을 이끄는 렌니 사뮈는 글루텐프리 요리의 개척자이자 미술랭 2스타 셰프로 성가가 높다. 레보드프로방스의 보마니에르(www.baumaniere.com)에서는 최고의 미식과 안락한 휴식이 두루 가능하다.

The Scent of Blooming

보태니컬 스타일로 꾸민 패밀리 스위트

봄은 수줍은 꽃망울의 화사함으로,
푸릇한 잎사귀의 싱그러움으로 첫 만남을 알린다.
봄 향기를 덧입은 더 클래식 500의
펜타즈 호텔 룸에서 자연을 만나다.

스타일링 | 김지영(아키텍타입)

LIVING ROOM

봄 아지랑이를 닮은 조팝꽃이 피다

여러 사람이 모여도 넉넉한 침대 공간,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지는 소파 배치, 시원하게 펼쳐진 도심 풍경이 조화를 이룬 거실은 모두를 위한 공간의 가치를 구현했다. 테이블에 무심한 듯 부러놓은 한아름의 조팝꽃 가지는 거실에 풍성한 봄 풍경을 더한다. 수수하고 잔잔한 향기는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편안함으로 채워준다. 하얀 조팝꽃이 터지는 봄, 무르익어가는 계절의 운치를 느껴본다.





KITCHEN

요리에 봄 감성을 불어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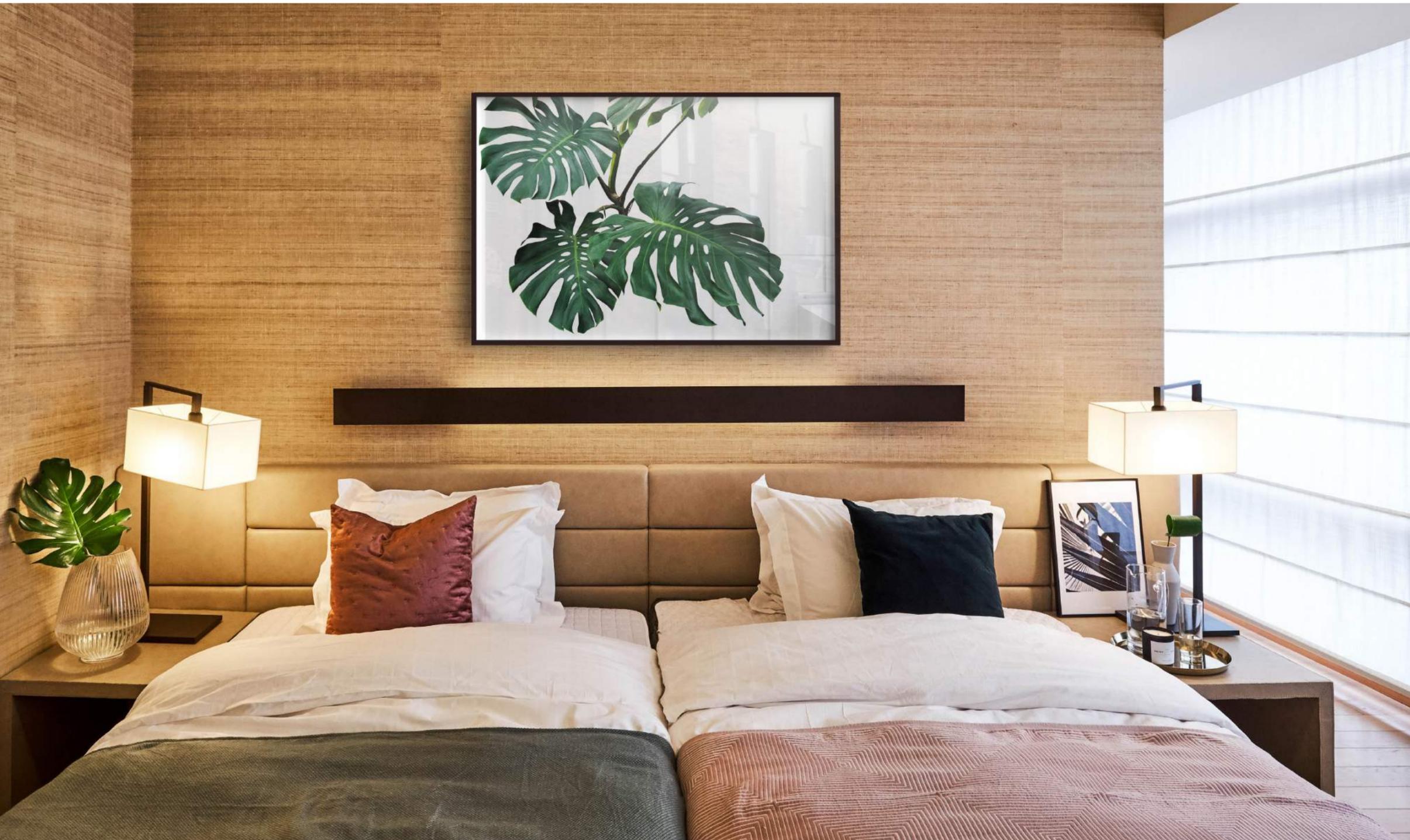
음식은 사랑이다. 집을 떠나 여행 중일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도심 속 호텔에서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을 즐기며 가족끼리, 친구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다. TV나 휴대전화 대신 주고받는 대화가 넘치는 주방에는 수줍게 핀 툴립 샤페트가 제격이다. 아리야리한 핑크빛 꽃은 대리석 벽면의 패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주방을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연출한다.



BATHROOM

양란이 우아한 힐링 타임을 선물하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특별한 공간, 욕실. 고급스러운 타일과 우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욕실은 편리한 동선, 깔끔한 어메니티, 인공지능 비데까지 섬세한 배려를 담았다. 화사하게 핀 양란이 욕실 분위기를 한껏 산뜻하게 연출한다. 양란의 고운 자태는 보는 즐거움을,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마음에 안식을 준다.



BEDROOM

식물 정물화를 벽에 담다

휴식 공간인 침실에 담고 싶은 가치는 편안함이다. 독특한 질감의 사이잘 벽지와 요람처럼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침대는 최상의 수면 시간을 선물한다. 자연스러운 터치감이 살아 있는 그림은 침실 분위기를 살리는 특별한 아이템. 식물 모티브와 그린 컬러의 조합이 싱그러운 향을 풍길 듯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몬스테라잎 한 줄기를 유리 화병에 꽂아 심플한 멋을 살린다.

펜타즈 호텔, 뷔페 라구뜨와 결합한 '스프링 블라썸 패키지' 출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뷔페 라구뜨 식사권이 포함된 패키지

*웰컴 하우스 와인, 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 팩, 스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이 포근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스프링 블라썸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에는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뷔페 라구뜨 식사권이 포함돼 제철 식재료를 만든 신선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또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웰컴 하우스 와인과 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 팩, 피트니스센터 무료, 스파 50%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투숙 15일 전까지 예약하는 얼리버드 고객에게는 고급 어메니티 세트도 증정한다. 한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펜타즈 호텔은 봄꽃 축제가 열리는 어린이대공원과 서울숲, 독섬 한강공원이 인접해 봄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2인 기준 패키지

스위트룸: 주중 29만9000원 / 주말 37만9000원

3인 기준 패키지

슈퍼리어 스위트: 주중 35만9000원 / 주말 43만9000원



문의

전화 02-2218-5777 홈페이지 www.pentaz.c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Spring Taste

간절히 기다린 제철 요리가 미각을 깨운다.
식탁 위에 오른 파릇함은 반가움을 넘어
건강으로 마무리된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라구뜨의
식탁 위에 내려앉은 향긋한 봄을 음미한다.

스타일링 | 김지영(아키타입)



COLD & HOT

딸기브루스케타

빵 위에 간단한 토핑을 올리는 대표적인 이탈리아식 오픈 샌드위치. 토핑 재료로 쓰인 양파와 딸기의 조화가 절묘하다. 딸기의 단맛이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질의 향이 산뜻함을 더한다.

딸기를 곁들인 포향초샐러드

풍부한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포향초는 당도가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좋다. 신선한 포향초에 상큼한 딸기와 사각사각 식감이 좋은 적양파를 곁들여 만든 샐러드는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 특효다.

궁바오슈림프(궁보새우)

누구나 좋아하는 탱글탱글한 새우와 중국 왕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궁바오 소스가 만난 따뜻한 요리. 중국 쓰촨 요리에 즐겨 쓰는 궁바오 소스는 매콤한 맛이 나 우리 입에도 잘 맞는다.

꿀에 절인 금굴포션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금굴은 3~4월이 제철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무기력해지는 봄철에 비타민을 보충해준다. 금굴을 꿀에 절여 단맛을 더하면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로 잘 어울린다.



KOREAN & JAPANESE

봄동불고기냉채

봄을 알리는 채소인 봄동은 수분이 많아 단맛이 나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조식이 연해 식감이 좋은 봄동과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불고기를 새콤한 간장 소스에 버무려 먹으면 봄철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리다.

우니 올린 한치뎃밥

정성을 담은 일품요리가 행복을 가져다준다. 고급 식재료로 알려진 싱싱한 성게 알과 쫄깃한 한치를 따끈한 밥 위에 듬뿍 올린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바다가 들어오듯 호사스러운 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해산물을 조합한 요리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DESSERT

녹차시폰케이크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녹차를 이용해 시폰 시트를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생크림과 견과류를 얹었다. 빛깔 고운 식용 꽃을 베어 물면 눈으로, 입으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LA GOUTTE



라구뜨(La Goutte)는 물방울을 모티브로 섬세하고 정제된 이미지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뷔페다.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한 식재료와 오가닉 조리법으로 만든 최고의 요리를 제공한다. 홍초와 흑초를 이용한 영양초밥 코너, 스노 크랩과 왕새우로 만든 일품요리를 선보이는 해산물 코너, 에스닉 푸드를 맛볼 수 있는 딤섬&아시안 누들 코너는 요리사가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맛보는 라이브 키친만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대리석, 원목 등 자연 친화적 소재로 꾸민 라구뜨의 인테리어도 품격 있는 식사에 한몫한다. 특히 통유리의 실내 테라스는 도심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으로 만족감을 더해준다.

Breakfast Buffet

주중 07:00~10:00	성인 2만2000원
토요일 07:00~10:00	초등학생 1만5000원
일요일·공휴일 07:00~10:00	미취학 아동 1만5000원 (36개월 이상)

Lunch Buffet

주중 12:00~14:30	성인 주중 4만5000원
토요일 11:30~14:30	성인 주말·공휴일 5만9000원
일요일·공휴일 11:30~14:30	초등학생 주중 2만2000원 초등학생주말·공휴일 2만7500원 미취학 아동 1만6500원 (36개월 이상)

Dinner Buffet

주중 18:00~21:30	성인 주중 5만6000원
토요일 1부 17:00~19:00	성인 주말·공휴일 5만9000원
토요일 2부 19:30~21:30	초등학생 2만7500원
일요일·공휴일 17:30~21:30	미취학 아동 1만6500원 (36개월 이상)

문의

전화 02-2218-5771 홈페이지 www.pentaz.co.kr
키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구뜨



365일 건강을 약속한다

PENTAZ HOTEL FITNESS

생명력 넘치는 봄기운이 완연하다.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을 깨우고 체력을 기를 시기다.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과 다양한 종류의 장비,
프로페셔널한 강사로 구성된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에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하늘이 보이는
넓고 쾌적한 공간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는 것이 좋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특히 필수적이다. 황사나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외출이 꺼려지는 도시에서 안전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가 그 해답이 되어준다. 회원들은 넓은 유리 창문을 통해 실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채광이 좋은 1,530㎡ 규모의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실력과 트레이너와 세계적인 장비 구비

건강운동관리사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필라테스, 재활 치료 등 여러 분야를 섭렵한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일대일 맞춤식 운동은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의 자랑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테크노짐(Technogym)사의 첨단 운동기구를 갖춰 회원들은 효율적으로 운동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테마의 짐(GYM) 공간 활용 가능

PT존 최고급 운동 장비와 전문 트레이너의 일대일 맞춤식 운동

GX룸 최신 음향 시설과 최고급 단풍 강화마루 적용. 리드믹 운동을 기본으로 에어로빅, 댄스핏, 코어, 요가 등 15가지 이상의 스페셜 그룹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필라테스존 특수 제작한 운동기구를 이용한 자세 교정, 근육 강화, 부상 재활 및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동 처방실 맞춤식 운동 처방 서비스

야외 수영장 'SKYPOOL' 지상 5층에 위치한 스카이풀(수심 1.2m, 길이 25m)로 여유롭고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



건국대학교 병원과 연계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운동은 자신의 체형과 체질, 건강 상태, 기저 질환 여부를 고려하여 강도, 횟수 등 운동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는 획일화된 운동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회원 맞춤식 운동 처방을 내림으로써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 설문지, 생활 습관, 비만, 체력, 노화 검사를 통해 회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심층 상담과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 분석 데이터는 자동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쓰인다. 건국대학교 병원과 연계한 일련의 평가 과정은 예방을 넘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피트니스 회원만 누리는 특전

- 체련장 이용(GX 프로그램 무료)
 - 스파(온천 성분이 함유된 천연 암반수) 이용
 - 실내 골프장(타석별 최첨단 스윙 분석 시스템 설치) 이용
 - 야외 수영장 이용
 - SWISPA(스킨케어 스파) 할인
 - 식음료(라구뜨, 라비앙로즈, 마실 등) 10~20% 할인
 - 시설 내 문화 공간(도서관, 카페 마실, A/V룸 등) 이용
 - 파주 KU 골프 파빌리온C-C 할인 및 리무진 셔틀버스 운행
 - 통영 동원로얄C-C 할인
- ※ 회사 사정에 의해 회원 혜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ITNESS INFO

- 운영 시간 월~토요일 5:30~22:00, 일·공휴일 9:00~21:00
- 정기 휴관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 헬스, 스파(사우나), 실내 골프장은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

* 2018년 펜타즈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구분	보증금(만 원)	연회비(원)	1인 기준(원)
개인	3,800	3,028,000	3,028,000
(기명 1인)	1,000	4,260,000	4,260,000
	2,000	3,820,000	3,820,000
부부	5,960	6,056,000	3,028,000
(기명 2인)	1,000	8,238,400	4,119,200
	2,000	7,798,400	3,899,200
가족	2,900	2,928,000	2,928,000
(기명 1인)	1,000	3,764,000	3,764,000
	2,000	3,324,000	3,324,000
법인 1	4,300	3,028,000	3,028,000
(기명 1인)	1,000	4,480,000	4,480,000
	2,000	4,040,000	4,040,000
법인 1(무기명 1인)	0	6,600,000	6,600,000
법인 2	6,500	6,056,000	3,028,000
(기명 2인)			
법인 2	8,000	6,056,000	3,028,000
(기명 1인, 무기명 1인)	2,000	8,696,000	4,348,000
	3,000	8,256,000	4,128,000
	5,000	7,376,000	3,688,000
법인 3	10,000	9,084,000	3,028,000
(기명 2인, 무기명 1인)	3,000	12,164,000	4,054,600
	5,000	11,284,000	3,761,300

산정 방법

연회비 차액은 원보증금 차액의 금리 4% 적용

가입 방법

1. 보증금, 연회비 완납 시
2. 신청서, 약관 작성
3. 의무 사용 기간 3년

입금 계좌

국민은행 578237-04-000549
예금주 더 클래식 500

문의

전화 02-2218-5800 홈페이지 www.pentaz.co.kr

최첨단 IT 접목으로
시니어 의료 비즈니스를 실현한다

더 클래식 500 시니어 헬스케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시니어 타운 '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최고의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 LG전자와 업무 협약 양해 각서(MOU)를 체결해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과 시니어 의료 비즈니스로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펼치고 있다.

라이프 케어 센터만의 고품격 헬스케어 서비스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에게는 의료, 운동,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 의료 관리 서비스는 예방과 응급 관리로 나뉜다. 입주 회원에게는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어 평소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 이력 관리를 진행한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응급 응대 교육과 응급 체계 관리에 힘쓴다. 두 번째 운동 관리 서비스는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세 번째 영양 관리 서비스는 적정 영양소 및 칼로리를 고려한 식단 제공 및 질환에 따른 치료식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라이프 케어 센터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고려층이 많은 더 클래식 500의 특성에 맞게 네 가지 케어 콘셉트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먼저 응급 상황에 대한 응대다. 세대 안이나 공용 화장실에 설치된 동작 감시 센서가 응급 상황을 인지하면 라이프 케어 센터가 유기적으로 응대하고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해 대응하고 있다. 낙상 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입주민별 낙상 점수를 산출해 위험군에 따라 운동과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세대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정기 뉴스레터 제공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인지 기능 장애, 즉 치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적 기준보다 위험군의 범위를 넓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은 만성 질환 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두 가지 이상 가진 입주민이 70%에 달하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더 클래식 500은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IoT 기술과의 서비스 융합에 주력하고 있다.

MEDICAL Premium LIFE CARE CENTER

건국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

24시 열린 의원



Life Care Team Leader



"더 클래식 500은 입주민의 질환 관리뿐 아니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IoT 기술을 접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더 클래식 500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클래식 500 라이프 케어 센터
조은경 팀장

미래지향형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추진

더 클래식 500은 한발 앞선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의료 서비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oT(사물인터넷),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착용자의 호흡, 혈압 등 건강 상태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맞춤 의료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우선 KAIST와 업무 협약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새로운 시니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회원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닥터 M 프로젝트'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KAIST 사이언스 헬스 센터 김희평 박사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술 발전을 통해 치료 목적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한 입주 회원의 활동 패턴과 건강 정보를 통합 분석해 의료, 운동, 영양 관리에 적용한다. 더 나아가 응급 상황 대응과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IT를 결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1인 세대 원격 모니터링 기술, 응급 상황 사전 예측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더 클래식 500은 지난 5월 LG전자와도 업무 협약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더 클래식 500만의 차별화된 시니어 서비스 역량과 LG전자의 IoT·로봇 기술력을 접목하여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특성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함께 발굴하고, 후후 상품화 검증 및 테스트 운영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니어 세이프티(응급주의)는 세대 안팎에서의 낙상 감지와 응급 알림, 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낙상 위험 예측 등이 웨어러블 기기와 세대 내 거치 기기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시니어 생활 보조(생활 편리)는 기억력과 청력 저하 등으로 인한 불편을 스마트 태그, 사운드 헬퍼가 해소해준다. 이 외에 신체 활동량과 통증 관리 등을 도와줄 시니어 웰니스(건강관리), 감정과 인지 능력, 심리 케어 등을 돕는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슈즈다. 걸음 패턴으로 치매 전조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논문 발표도 있으므로 데이터화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클래식 500의 이러한 노력과 차별화된 기술은 건강 관리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된 시니어 의료 비즈니스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다.

1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정보 측정 시스템.
2 스마트 슈즈.



인생의 특별한 순간

더 클래식 500 '꽃보다 청춘' 평창 올림픽 투어



지난 2월 22일 더 클래식 500에 거주하는 입주 회원 28명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으로 출발했다. 많은 기대와 염원 속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회원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

천년의 숲이 선사하는 힐링 타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책과 다름없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그 커다란 세상을 읽는 독자가 되는 경험이다. 겨울 끝자락의 한기가 묻어나는 2월, 강원도 평창으로 떠나는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도 2박 3일간 마주하게 될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3시간을 달려 발길이 닿은 첫 번째 여행지는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 월정사. 산채정식으로 속을 든든히 채운 회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고즈넉한 월정사 경내로 들어섰다. 오대산 월정사는 신라 시대부터 1,400여년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해온 사찰로, 자장율사를 비롯해 한암 스님, 탄허 스님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선지식이 머물던 곳으로 유명하다. 국보 제48호 팔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좌상 등 월정사가 보유한 문화재도 여럿이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월정사 인근 1km에 달하는 전나무 숲은 이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오대천 사이로 수령 500년 된 전나무가 도열한 풍경은 압도적일 만큼 아름답다. 저지대 탐방로로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회원들은 사철 푸른 기운으로 천년 고찰 월정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이 연출하는 장엄한 분위기에 한껏 취했다. 느릿느릿 산책하며 여유와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Hello, 평창!

박진감 넘치는 올림픽 현장 속으로

회원들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인 강릉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으로 이동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은 순발력과 테크닉이 요구되는 빙상 경기로,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종목 중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만큼 인기가 많아 경기장은 응원의 열기로 가득했다.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들도 목소리 높여 응원하며 역사적인 올림픽 현장 분위기를 만끽했다. '골든 데이'로 여겨진 이날, 아쉽게도 남자 500m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회원들에게도 가슴 찡한 감동으로 남았다.

속초에서 힐링

힐링 온천과 즐거운 자유 여행

여행 둘째 날, 회원들은 속초의 척산온천장에서 여독을 풀었다. 척산온천지구는 날개를 다친 학 한 마리가 이곳의 뜨거운 물에 몸을 적서 상처를 치료했다는 전설이 있어 '학사평'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하 250m에서 샘솟는 45℃의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창밖으로 펼쳐진 설악산의 절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여행이 주는 행복은 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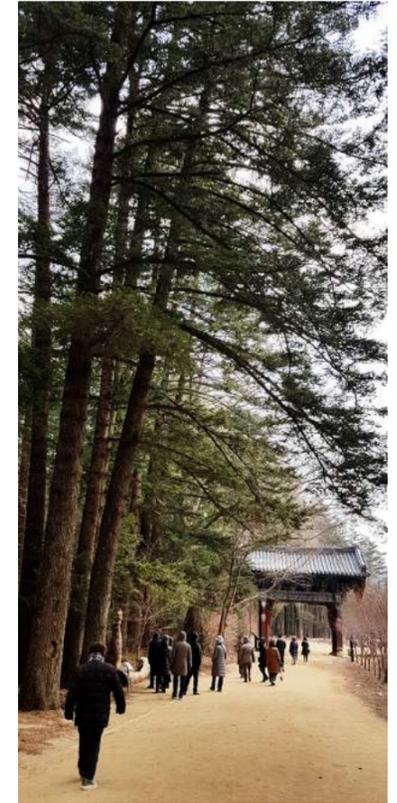
오후에 들른 속초중앙시장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해 소소한 재미가 가득했다. 회원들은 재래시장에 얽힌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족과 지인에게 줄 선물을 구입했다.

이날 여정은 낙산사의 저녁노을로 마무리되었다. 2005년 4월 산불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된 이후 복구 과정을 거쳐 제 모습을 찾은 낙산사는 기암괴석과 노송으로 이루어진 해안 절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2박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문학의 감성을 안고 집으로

여행지에서는 평소와 달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듯하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과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품게 된다. 회원들은 서울로 돌아오기 전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인 김유정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김유정문학촌을 방문해 아쉬움을 달랬다. 김유정은 우직하고 순박한 주인공과 영동한 반전, 속어와 비어를 자유롭게 구사한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소설 '뽕꽃'으로 명성을 얻었다. 회원들은 김유정 생가와 기념 전시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1930년대 한국 소설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 2박 3일간의 여정은 매 순간 즐거웠고 새로웠다. 입주 회원 중 한 분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회원들과 동계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직접 보고 평창, 속초, 춘천 등 강원도의 명소를 둘러보며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다가오는 5월에는 더 클래식 500 '꽃보다 청춘 일본 여행'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도 회원들과 동행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라며 돌아오는 버스에서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번 여행을 함께 한 회원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다음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은...



*꽃보다 청춘 일본 여행의 자세한 내용은 48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CLASSIC 500 문화센터 봄학기
 2018년 3월 2일~5월 31일

커뮤니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강사명	장소	수강료	
스포츠						
굿모닝! 아침체조	월-금	07:30-07:50	이혜숨	A동 4층 다목적실1	무료	
검도	화-목	19:00-21:00	이봉주 회원(재능 기부)			
바둑 입문반	목	16:00-18:00	조혜연 프로	A동 4층 다목적실2	7만 원 (입주 회원 20% 할인)	
탁구교실(1:1 개인 교습)	월·수	13:00-15:30	이나경	B동 4층 G.X룸	5만 원(1개월)	
한국무용	목	15:00-15:50	김운자	A동 4층 다목적실1	5만 원(1개월)	
왕초보 라틴	화	11:00-11:50	김복옥			
왕초보 모던(왈츠)	목	11:00-11:50	최찬영			
지르박&블루스 부부반(커플)	미정	3팀 이상 시 개강	박강현			
발레 기초	목	16:00-17:30	최성이 회원			6만 원(1개월)
1:1 댄스 개인 교습	개별	시간 조정	최현우(문의 *5514)			50만 원(10회)
학습						
실생활 스마트폰	화(월 3회)	10:00-11:00	조민하	A동 4층 다목적실2	무료	
스마트폰 활용(SNS, 생활 애플리케이션)	화-목	09:00-10:20	장정현	A동 7층 프리지아2	15만 원(3개월)	
컴퓨터 활용(블로그 운영)		10:30-11:50				
말문이 트이는 영어 회화(A)	화-목	14:30-15:20	조영숙 회원(재능 기부)	A동 7층 다알리아2	6만 원(3개월)	
왕초보 영어 회화		16:00-16:50				
말문이 트이는 영어 회화(B)		17:30-18:20				
말문이 트이는 영어 회화(C)		20:00-21:00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 회화(초급)	월·수	19:00-20:00	고영자 회원(재능 기부)	A동 4층 다목적실3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 회화(중급)	월·금	10:00-11:30				
예술						
신나는 노래 교실	목	10:00-11:00	이상혁	A동 4층 다목적실2	무료	
문향루(서예 동호회)	수	16:30-18:00	이병태	A동 7층 다알리아2		
예술 치유반		토	14:30-15:20	황인옥	A동 4층 다목적실2	
토요 남성 통기타	토	14:00-15:30	안승제	A동 4층 다목적실2	5만 원(1개월)	
토요 여성 통기타		15:40-17:10				
1:1 통기타 개인 교습	개별	시간 조정			4만 원(1개월)	
예술 치유 미술 중점반	수	15:30-17:30	황인옥	A동 4층 다목적실3	8만 원 (재료비 별도/월)	
그림 교실(서양화)	토	19:00-21:00	이은규	A동 7층 다알리아2	6만 원(1개월)	
도예반 '마음을 빚다'	월	15:00-17:00	이재철		12만 원 (기본 재료비 포함/월)	

THE CLASSIC 500 동호회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동호회

- 일시 월요일 15:45-17:20
- 회비 연 24만 원

검도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아래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인의 모임
(강사: 이봉주 회원/재능 기부)

- 일시 화-목 19:00-21:00
- 회비 무료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일상에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 일시 금요일 15:00-18:00(바둑대회: 반기별 1회)
- 회비 연회비·입회비 각 10만 원

숙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혹서기·혹한기 휴회)
- 회비 연회비·입회비 각 10만 원

댄스 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 일시 월·화·목·금요일 09:00-09:50
- 회비 연 40만 원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 일시 수요일 16:30-18:00
- 회비 무료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 일시 별도 공지
- 회비 무료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 일시 별도 공지
- 회비 무료

2018년 상반기 이벤트

4 April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주 차 **이벤트**
 굿모닝! 파워 워킹

5 May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주 차 **이벤트**
 어버이날 행사

3주 차 **여행 프로그램**
 봄날에 마주하는 순백의 대자연!
 일본 알펜루트 3박

5주 차 **이벤트**
 더 클래식 500 패밀리 골프대회

PENTAZ PRESTIGE MEMBERSHIP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고품격 서비스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
바우처 제공과 할인 등 모든 혜택을 담은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을 만나보세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호텔에서 객실 이용과 외식, 피트니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려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눈높이를 맞춰 프레스티지 멤버십 특전을 제공한다. 프레스티지 멤버십 카드에는 객실과 식음 시설, 스파 등 펜타즈 호텔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혜택이 담겨 있다. 대표적 혜택으로 꼽히는 바우처 제공은 스위트룸 1박 이용권과 라구뜨 2인 식사권, 스파 이용권 2매가 포함된다. 바우처만 사용해도 멤버십 가입 비용을 넘어서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펜타즈 호텔의 모든 객실 이용 시 주중 55%, 주말 50% 할인 특전이 주어지고, 객실 패키지 이용 시 10% 할인, 스파 20% 할인, 기념일 케어 서비스 등 다채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뷔페 라구뜨는 인원수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1~2인 기준 식료 전체 20% 할인된 가격으로 라구뜨의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호텔의 프레스티지 라이프를 지향하는 이에게 1년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펜타즈 호텔의 멤버십 혜택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펜타즈 프레스티지 멤버십

연회비	500,000원(VAT 포함)
이용 시간/횟수	1년/제한 없음
멤버십 가입 문의	02-2218-5300
객실 예약 문의	02-2218-5777



VOUCHER	<p>바우처 제공</p> <p>혜택 1 스위트룸 1박 무료 이용권(조식 2인 포함)</p> <p>혜택 2 라구뜨 2인 식사권</p> <p>혜택 3 스파 이용권 2매</p>
RESTAURANT DISCOUNT	<p>식음료 특전</p> <p>혜택 1 1~2인 식료 전체 20% 할인 3~7인 1인 무료(최대 33% 할인) 8~19인 2인 무료(최대 25% 할인) 20인 이상 식료 전체 15% 할인</p> <p>혜택 2 베이커리 10% 할인 음료 및 주류 10% 할인 Corkage Charge 1병 무료 및 추가 반입분 10% 할인 연회 식음료 10% 할인</p>
ROOM DISCOUNT	<p>객실 특전</p> <p>혜택 1 객실 주중 55%, 주말 50% 할인</p> <p>혜택 2 객실 패키지 10% 할인</p>
OTHER BENEFITS	<p>기타 특전</p> <p>혜택 1 스파 이용 시 20% 할인(5회에 한함) SWISPA 스킨케어 30% 할인</p> <p>혜택 2 기념일 케어 서비스 (연 1회 생일 또는 기념일 꽃과 와인 제공) * 예약 필수</p>

THE CLASSIC 500만의
VIP 여행

꽃보다 청춘 '일본' 편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도야마 알펜루트 3박 4일

“봄날에 마주하는 순백의 대자연”



일정 2018년 5월 16일(수)~19일(토)
대상 입주 회원 및 가족(선착순 20명)
가격 1,635,000원(1인 기준)
문의 회원관리팀 김인우(*5549)
주관 롯데 JTB 여행사



No.1 시니어 브랜드 <THE CLASSIC 500>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습니다.

<THE CLASSIC 500>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셜 리더 그룹의 'Private Senior Society'입니다. 최첨단 웰빙 시스템을 갖춘 주거 공간과 건국대학교병원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메디컬 서비스, 레스토랑과 피트니스 등 최고급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THE CLASSIC 500>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시니어 브랜드입니다.

<THE CLASSIC 500>은 이미 KAIST, LG전자, KEB하나은행, 롯데백화점,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THE CLASSIC 500>은 음식,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환영합니다. <THE CLASSIC 500>은 파트너사와 함께 시니어 브랜드를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02-2218-5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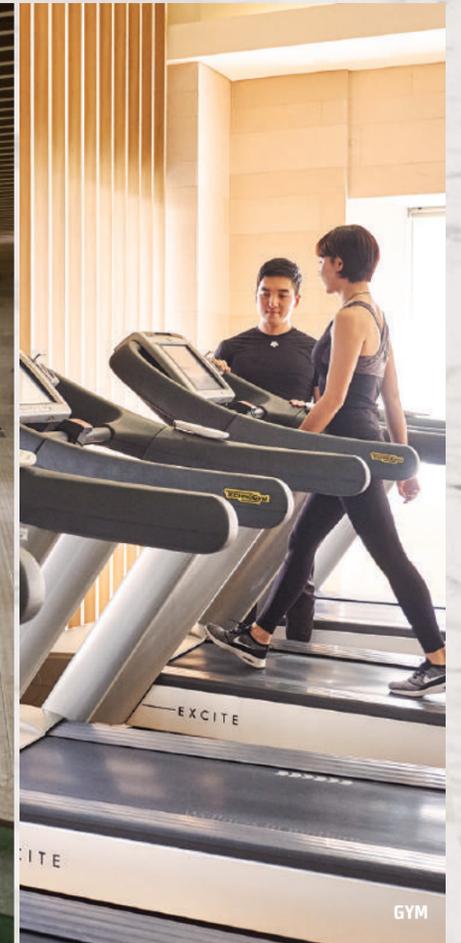
FOR YOUR HEALTHY LIFE



SWIMMING POOL



SPA



GYM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ADDRESS 90 Neungdong-ro, Gwangjin-gu, Korea 05065

TEL +82-2-2218-5800

WEBSITE www.pentaz.co.kr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문의 : 02 - 2218 - 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www.theclassic500.com